

LG화학, 프린터 토너 사업 철수

매각금액 600만달러로 해외기업 인수 타진 ... 비주력사업 정리

LG화학(대표 박진수)은 프린터용 토너 사업에서 철수하고 관련 공장시설 매각을 추진한다.

LG화학은 프린터 토너 재생카트리지(에프터마켓) 생산시설을 매각할 예정이며 매각금액은 600만달러(약 60억~7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토너시장은 OEM과 에프터마켓 2종류로 나누어지며 OEM은 프린터와 복사기 생산기업이 직접 카트리지를 생산하고 에프터마켓은 다 쓴 카트리지를 수리해 재생하는 사업이다.

LG화학은 1989년 토너 사업에 진출해 주로 에프터마켓의 중소 카트리지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해왔다.

생산능력은 5000~6000톤 상당으로 HP와 삼성전자, Cannon 등 프린터 생산기업에게 공급해왔다.

한 해외기업이 LG화학에 4월 말 MOU를 체결하고 5월부터 6월 초순까지 실사작업을 진행했으며 한 달 이내에 공장시설 인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LG화학이 비주력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신성장동력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토너 사업의 수익이 극히 적고 LG화학이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2차전지(LiB: Lithium-ion Battery) 소재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6/13>